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¹⁾

이택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목차

I. 머리말

II. 고하와 민족주의

III. 고하와 자유민주주의

IV. 고하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V. 해방 정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고하의 구상과 행동

VI. 맺음말

1) 이 글은 2025년 3월 12일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될 고하 송진우 탄신 135주년과 서거 80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학술대회 “송진우의 민족독립과 자유민주건국을 위한 활동” 에서 발표할 저자의 초고입니다. 시한의 촉박성 등으로 인해 일부 서지 사항들이 불완전한 점이 있으니 저자의 동의 없는 인용을 금지합니다.

I. 머리말

한국 정치사에서 고하 송진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비록 해방 직후 아쉽게도 매우 짧은 기간인 127일 동안 활동하고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 건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대한민국 초기 정치사에 있어서 거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석우가 삼천리 제4권 제4호(총25호), 1932년 4월 1일 자에 게재한 “나의 팔인관”에서는 조선의 인물 중 이미 완성된 권위자로 안창호, 송진우, 김성수, 김한, 박일병, 김규식, 이광수, 안재홍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송진우는 조선의 인물 중 정치가로의 소질이 제일 풍부한 정객으로 분류되고 있다.²⁾ 손세일 역시 1979년 작성한 ‘한국근대인물백인선’을 통해 해방 후 국가건설의 단계에서 어느 혁명가 보다 정치가로서의 경륜과 기반을 갖추어 해방 4개월 만에 정치 테러의 첫 희생자가 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그와 동시대를 산 정치인들 역시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낭산 김준연이 동아일보 1947년 12월 29일자에 게재한 “고하 송진우 선생 2주기를 맞이하여”에 따르면 고하의 유일한 취미가 정치였다. 그는 자나 깨나 정치를 생각하고 앉으나 누우나 조선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1945년 11월 소련 영사관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도 7,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조선 독립과 정치 얘기만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병옥은 1959년 8월 25일 발간한 『나의 회고록』에서 고하 송진우를 고매 활달하고 정치적 역량이 풍부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이에 일제 통치하에서도 고하는 절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교제와 교섭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수단과 자신감을 가지고 처신하였고 민족진영의 지도자로 권위와 존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위상으로 인해 역시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인은 동아일보 1970년 12월 29일 자에 투고한 “자유와 독립의 권화-고하 송진우 선생 25주기에 부쳐-”에서 최근 사상 우리 근역에 왔다 간 무수한 사람 중 그중에서도 겨레의 품 안에 안기고 가장 그리워지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두선 역시 고하를 무언중에 사람을 매혹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타고난 지도자로 언급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부 역시 뒤늦게나마 그의 공적을 평가하여 2023년 2월 28일

2) 이 글에서는 다른 정객류의 인물로 신석우, 장덕수를 꼽고 있다. 하지만, 신석우는 너무 빨리 은퇴하여 좀 더 긴 시일의 현실 이력을 가져야 하며 장덕수는 의회정치가류의 인물이나 학계로 가고 있으며 최린은 새 시대의 지지를 받기에는 너무 음험하고 구식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부터 한 달여 동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을 통해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해 덧붙여진 몇 가지 누명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첫째, 그가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것으로 이는 고하 개인에게 해당되기보다는 해방 직후 고하가 속해있었던 한국민주당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한겨레』 국제뉴스팀장과 『한겨레 21』 편집장을 지낸 길윤형은 해방정국에서의 주요 행위자들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 인사들과 맞선 우익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제시한다. 그리고, 우익 민족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일제 말기 전향해 낫뜨거운 친일 활동을 벌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있었고 정통성에 큰 흠결이 있었던 탓에 좌익에 비해 수세적인 자세로 해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³⁾

이에 대한 오해들은 창립 당시 한국민주당의 80%는 민족주의자, 14%는 사회주의자였으며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불과 10%에 불과했음을 지적한 윤덕영의 연구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와 최근에 발간된 김형석의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통해 많이 해소되었으나, 적극적으로 언론과 학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하 그 자신이 일제 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고 세번 구속되어 27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도 와병을 핑계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윤덕영은 “송진우는 김성수와 달리 일제 말기에도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⁴⁾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하가 적극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에 자금을 희사하였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김좌진 장군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후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을 주도하며 광복회장을 지낸 이강훈(李康勳)은 분명히 고하로부터 거액의 독립자금을 네 차례나 송금받은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증언한 일이 있다. 이강훈은 ▲1926년 5월 모란역에서 6천원 ▲1928년 9월 돈화현(敦化縣) ‘얼토랑쯔’에서 상당 액수 ▲29년 2월 만주의 산시(山市)에서 소만(蘇滿) 국경으로 본부를 이동하려 할 때 1만원 ▲1930년 1월 27일 김장군이 돌아가자 만장과 함께 일화(日貨) 10원짜리로 1만 원 등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도 네 차례였다고 밝혔다. 이강훈은 그 밖에도 고하가 다른 독립운동단체

3)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서해문집, 2020, 15-16쪽.

4)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96쪽.

에도 비밀리에 자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증언한 일이 있다.⁵⁾

둘째, 그가 극우세력이었다는 오해이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해방전후사의 인식』류의 역사관에서 남북분단의 빌런쯤으로 간주되는 한국민주당의 초기 지도자가 고하이기 때문에 받는 오해이다.

그러나, 박명림은 2011년 강연에서 그를 중용적 진보주의자로 간주한 바 있다. 실제로 고하는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을 동아일보에 채용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글도 적극적으로 게재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글도 묵인해 주었다는 유민 유진오의 증언도 있다. 유진오가 1977년 발간한 양호기 중 “보전, 고대 35년의 회고”에 따르면 고하와 인촌 두 사람은 유진오가 이지휘라는 필명으로 진보적, 좌익적 입장에서 쓴 자신의 글을 게재하고 그 실명을 함구하였다. 특히, 유진오의 다른 증언에서 공산주의에 관해서는 언성을 높이던 고하의 반공적 입장이 분명히 발견된다. 따라서, 이는 윤재근이 1995년 8월 10일 게재한 “근촌 백관수-봄기운은 어찌 이리 더딘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고하가 이끌었던 초기 한국민주당이 보인 좌경도 우경도 아닌 민족의 대연합적인 성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하 자신은 분명한 반공주의자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초기 정강정책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김준연은 물론 김약수와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참여하는 중도좌우 연립 우파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그가 몽양 여운형이 제안한 좌우합작 정부 건설을 거부하여 해방 직후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 무산되었으며 분단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오해로 이는 두 번째 오해와도 연결된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정식⁶⁾이 제기하고 당대를 살았던 고하의 애제자인 전 국회의원 유흥이 이를 반박한 바 있다. 먼저, 이정식은 동아일보 1972년 1월 13일 자에 게재한 (1) 혼란 속의 통일운동-분산된 민족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이정식은 먼저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의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하 송진우 등이 임시정부의 국내적인 위치와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큰 기대를 지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해방 직후에 몽양 여운형과 민세 안재홍이 고하 송진우에게 협력을 구하였을 때 그가 응하였었다면 좌우의 분열이 격심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우익진영에서 몽양과 협

5) 『월간조선』2023년 12월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조부 송진우의 一生: “古下는 해방 후 혼란 속에 자유민주주의 기초 닦은巨人”」,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312100048>

6) 이정식은 2008년 몽양 여운형 평전을 저술한 후 2019년에는 인터뷰를 통해 “서재필, 이승만, 김구식 등을 연구하여 전기를 쓰기도 했고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연구한 바 있지만 여운형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 2019년 10월19일, 「3·1운동 뒤에 ‘몽양’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285056.html>

조하였었다면 건국준비위원회 역시 공산당과 협력하여 좌익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국내 지도자들의 통일운동이 실패한 것은 고하와 몽양 두 사람의 해방 정국 헤게모니 쟁탈로 인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상적 견해의 차이와 인간성의 차이, 해외 망명객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과 극심한 대항의식으로 인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유홍은 (2) ‘혼란속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먼저 그는 고하가 임시정부를 중시했던 것은 임시정부의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라 3.1운동의 주동 세력이었던 고하와 그 동지들이 임시정부를 3.1운동의 소산으로 여겨 그 법통을 중시하여 간직하고 이어나가고 있었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지도자를 망라하여 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건국에 임하고자 하였던 고하의 정치적 식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임정의 법통에 대한 의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탄압하에서도 국내에서 옥고 등 고난을 치른 지사들을 공대했었던 고하는 해외 망명 중의 선배나 동지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임시정부를 중시했었던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해방 전 출옥 후 지도자로서의 처세가 탐탁치 못했고 임시정부의 법통마저 부인하려는 몽양과의 협력이 근본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제 시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3대 일간지였던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었던 몽양이 이를 도산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재략과 경험의 부족을 보여준 것은 물론,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국내 지도자를 하나로 묶어서 전쟁에 직·간접 간에 협력, 이용하려고 만든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에 대해 협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 불신을 부추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왕년의 명성과 인기를 잃어버리고 오직 능변과 소탈한 성품으로 미래의 향방을 모르던 약간의 젊은 청년 학생층에게 인기를 유지했었던 몽양이었음에도 고하는 오히려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직후인 8월17일 몽양이 그를 내방하여 협력을 요청하자 간곡하게 먼저 해외 망명 동지들의 환국에 건국준비를 하고 그때 가서는 자신이 몽양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었다고 유홍은 지적한다. 예컨대 이렇게 고하는 3.1운동의 법통을 이은 임시정부와 기타 망명 중의 여러 정객의 귀국을 기다려 안과 밖의 지도자가 하나로 뭉쳐 건국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홍은 해방 직후 몽양의 협력 요청에 고하가 응했었다면 좌우 분열은 격심해지지 않았으며 건국준비위원회가 공산당과 협력하여 좌익 일변도로 나가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민

족주의자와 협력하고 화목하게 정부를 이룬 예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몽양이 민족 진영에게 진심으로 협조를 구하지 않았음은 민세 안재홍의 이탈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후 밀착되었던 공산당의 협력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산당에서도 갈려 나왔다는 것이 몽양의 지도자로서의 식견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해방정국에서의 민족 분열의 주된 책임을 몽양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고하에게 돌리는 것은 공정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홍은 몽양이 성급하게 전쟁에 완패하고 우리 영토를 불법 강점해서 아무 자격이나 권한도 없던 일정에게서 권력을 넘겨받았다가 진주한 미군정부로부터 건국준비위원회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든 몽양의 단견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몽양에 비해 고하는 3.1운동 이래로 해방까지 민족지도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극좌파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임시정부를 포함한 해외 모든 민주세력을 포섭하려 했던 경륜과 수완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고하는 몽양이 출옥 후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하고 해방이 되었던 시기까지 그를 아끼고 협조했으며 해방정국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을 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회가 오면 몽양을 지도자로 추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의 해방정국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유홍은 반박하고 있다.

한편, 길윤형은 강원용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운형은 비정한 정치의 세계를 관통해 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한다. 강원용은 1946년 여름 무렵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여운형을 찾아가 항의했더니 “이강국과 박헌영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에 강원용은 “그분의 사상이라는 것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공산당한테도 꼭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게 되면 (사상의 폭이 굉장히 넓고), 어디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좃대라는 것이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에 친동생 여운홍마저 형에 대해 ‘금도끼’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다. 겉으로는 보기에 좋지만 “실용성 있게 실제 뭘 자르지는 못한다”는 얘기였다.⁷⁾

또한, 길윤형은 몽양이 자신들의 정당성에 심취해 국제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예측했다고 비평한다. 예컨대 그는 인민공화국과 설립하여 매일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합국이 진주만 하면 즉각에서 국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즉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미국

7)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340-341쪽.

에겐 공산주의자들이 드글대는 인민공화국에게 국권을 넘길 의사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⁸⁾

나아가 그는 인민공화국 설립에 관한 여운형의 다음과 같은 대답 역시 지적한다. “조선 독립은 단순한 연합국의 선물인 것은 아니다. 우리 동포는 과거 36년간 유혈의 투쟁을 계속해 온 혁명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획득한 것이다. 혁명에는 기탄이 필요하지 않다. 혁명가는 먼저 정부를 조직하고 뒤이어 인민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과도기에 비상조치로서 생긴 것이 인민공화국이었다”는 이 대답에 대해 길윤형은 이러한 몽양의 신념은 지옥같던 36년을 치열하게 살아낸 한 사람의 조선인 혁명가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사고방식은 아니었다고 비평한다.⁹⁾

따라서, 전술한 고하의 제자 유흥의 반박처럼 고하와 그의 동지들이 건국준비위원회에 협력했었다면 일시적으로 표면적인 협조는 이루어졌을지는 모르나 지속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좌우합작의 이름 아래 시도되었던 세계 공산 혁명사의 경우처럼 공산당의 선전에 이용만 되고 민족은 지리멸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전술한 윤덕영의 연구와 주장을 수용하되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한국민주당에서 그와 함께 했었던 그의 막역지우 인촌 김성수와 가인 김병로, 우촌 전진한, 동암 서상일, 설산 장덕수와 해위 윤보선, 백봉 라용균 등 적지 않은 사람들 역시 그가 지녔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송진우는 분명 반공주의자였고 그의 합작 대상은 여운형이나 김규식 등 중도파보다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제 아래 신간회와 동아일보 운영, 중앙학교 교장직을 통해 다양한 합작 경험이 있는 온건한 성향의 소유자였다. 이렇듯, 그는 그의 사후에 한국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당내 보수파와 비주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였다. 이에, 고하 송진우가 이끌었던 초기 한국민주당에는 친일 지주 세력만이 아니라 송진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등의 여러 세력이 참여했으며 대표적 인물로 김병로와 김약수, 원세훈, 서상일, 전진한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장. 머리말에서는 해방 직후 때

8)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343-344쪽.
9)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349쪽.

우 짧은 기간인 127일 동안 활동하고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건국사의 거인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하에 대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누명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 해명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첫째, 그가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오해는 고하 개인보다는 해방 직후 고하가 속해있었던 한국민주당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고하가 지도자로 있었던 창립 당시 한국민주당의 80%는 민족주의자, 14%는 사회주의자였으며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10%에 불과했다. 또, 고하 개인은 일제 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고 세 번 구속되어 27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도 와병을 핑계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협조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고하가 적극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에 자금을 희사하였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둘째, 그가 극우세력이었다는 오해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류의 역사관에서 악의 축으로 간주되는 한국민주당의 초기 지도자가 고하이기 때문에 받는 오해이다. 그러나, 박명림은 그를 중용적 진보주의자로 간주한 바 있으며 고하 자신은 반공주의자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초기 정강 정책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사회주의자들도 참여하는 중도좌우연립 우파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그가 몽양 여운형이 제안한 좌우합작 정부 건설을 거부하여 해방 직후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 무산되었으며 분단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이정식의 지적에 대한 유희의 반박에 따르면 고하가 임시정부를 중시하고 건국준비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했었던 것은 임시정부의 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라 고하와 그 동지들이 임시정부를 3.1운동의 소산으로 여겨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에 임하고자 하였던 고하의 정치적 식견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런 그에게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려는 몽양과의 합작이 근본적으로 어려웠다. 다음으로 해방 직후 몽양의 협력 요청에 고하가 응했었다면 좌우 분열은 격심해지지 않았으며 건국준비위원회가 공산당과 협력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와 협력하고 화목하게 정부를 이룬 예가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간의 해방정국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 운운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기회가 오면 몽양을 지도자로 추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던 고하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원용의 증언을 바탕으로 여운형이 비정한 정치의 세계를 관통해 내기에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길윤형 역시 몽양이 국제정세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예측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인민공화국 설립에 관한 몽양의 신념은 미국과 소련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사고방식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고하와

그의 동지들이 건국준비위원회에 협력했었다면 좌우합작의 이름 아래 시도되었던 세계 공산혁명사의 경우처럼 공산당의 선전에 이용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장. 고하와 민족주의에서는 고하를 상징하는 사상적 조류 중 하나는 단연 민족주의로 당대 대중들에게도 고하가 사장이었던 동아일보 역시 민족주의 신문으로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게 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고하는 좌우합작 기관이었던 신간회 활동을 통해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하는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일체의 정치 사회 활동을 중지하고 은둔하면서 조선만의 사상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동아일보 폐간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합법적 정치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고하는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통해 미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주위의 지식인들로부터 외국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듣고 있었던 그는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며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 지지론’을 선도적으로 주장하면서 한국민주당 창당과 활동을 주도한다.

III장. 고하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해방 직후 고하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이 자유민주주의, 임정 봉대, 미군정 인정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이는 조선공산당의 9월 문건에서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와 결탁해 저 미국식 데모크라시 적 사회제도 건설을 최고 이상으로 삼는 반동적 민족부르주아지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한국민주당 출범 당시 총무 8인 중 한 명이었던 허정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한국민주당의 지상과제였다는 회고를 남겼다. 이에 윤덕영의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에서는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의 사상을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고하는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일본의 민본주의 등 수정 자본주의 사상과 이념을 지향했다. 그리고, 독점 자본의 제한과 민중 생활 보장, 중요산업의 국가적 통제 등 국가의 개입을 긍정했다. 한편,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고하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는데 해방된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일찍부터 바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하의 자유민주주의에는 월남 이상재와 우남 이승만이 영향을 미쳤다.

IV장. 고하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고하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 경제민주화의 원조에 해당하는 인물로 정치에서 독재가 문제가 있듯이 경제에서 독점 자본이 문제 있다는 인식을 보였던 그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인사들

을 포용하는 성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북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복지 사회주의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진보적인 사회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상호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철학을 추구한다. 그리고 고하 송진우의 정치 이념도 유사한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일종의 복지사회주의를 추구하였고,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상호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철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덕영은 송진우의 ‘자유권과 생존권’ 주장을 ‘자유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구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이에 1945년 9월 16일 한국민주당 창당대회의 강령과 정책에서도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강령 3. 근로 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과 정책 1.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와 4.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5. 중공업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6. 중요산업의 국영 또는 관제 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편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문제를 자본가의 선의로 해결할 수 없음 역시 분명히 하고 있었다.

V장. 해방 정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고하의 구상과 행동에서는 고하가 예측한 것처럼 패망이 다가오게 되자 그를 호출하여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총독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임시정부의 봉대를 주장한 고하의 해방 정국에서의 활동을 다루었다. 뚜렷한 건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하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 신생독립국가를 세워야하며 전문학교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계급과 해외에 나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일 투쟁을 해온 혁명 세력이 주축이 되어 독립국가건설을 달성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구상 하에 그는 조선총독부가 제안한 정권 인수안을 거부한 자신을 대신하여 나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의 후신인 인민공화국을 타도하기 위해 나섰다. 1945년 9월7일 한국에 미군정이 선포되자 고하는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미군정 고문으로 취임하여 김용무와 조병옥을 사법부장과 경무부장으로 추천 발령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고하가 미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하와 한국민주당 인사들은 한국에 잠정적인 훈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군정을 도와서 장차의 정부수립에 필요한 행정, 사법, 입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자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이어, 그는 한국민주당을 9월 16일에 결성하고 당수에 해당하는 수석 총무로 취임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초기 한국민주당

은 보수적 지향에서 우파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합 정당이었으며, 결성 당시 한국민주당과 자매단체인 국민대회준비회의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 중 90% 이상이 민족운동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족주의 정당이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귀국하자 고하는 반공정신이 투철한 항일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혼란한 해방정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다. 고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한국민주당 당원 소유의 돈암장을 이승만에게 제공했다. 한편, 그는 방송과 신문을 접수한 인민공화국에도 맞설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고하는 동아일보의 복간을 서둘러 고하가 사장인 동아일보는 반공 신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인민공화국 타도에 서게 된 고하는 안재홍, 공산당 온건파인 김철수, 이영, 최익한 등과 함께 정책의 통합을 모색하며 임시정부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고하가 기다리고 있었던 임시정부 역시 심히 분열되어 있었고 한국민주당과 반목하게 된다. 1945년 12월 2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3상 회의를 통해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전해지고 미군정청과는 충돌을 피하고 국민 운동으로 반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한 고하는 당장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찬탁론자로 모는 임시정부 강경파들과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서울 종로구 원서동 74 자택에서 한현우, 유근배 등 자객 6명의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다. 고하의 암살범에 대해서는 추측이 분분하다.

VI장. 맺음말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고하 주도 하의 한국민주당은 해방 정국 하에서 좌, 우가 함께 하는 중용적인 정당 정치 속에서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꿈꾸었다. 그러나, 고하 사후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주당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는 민족진영의 분열로도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고하 사후 1946년 좌우합작운동을 계기로 한국민주당에서 탈당한 일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중동맹’ 등 해방 정국의 중간파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고하의 죽음 앞에서 어린애처럼 평평 울었던 이승만의 모습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한다. 좌, 우익이 총망라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했던 우남이었으나 고하가 서거할 즈음에는 민족 전체가 아닌 우파의 지도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도 고하에게 자신의 역부족을 호소한 바 있었고 그를 격려와 위로로 일으켜 세운 것이 고하였다. 이승만의 눈물은 이제 고하가 없으니 더 이상 중간파나 좌파를 통합시킬 구심점이 없다는 절실한 인식에서 나온 한탄이었을 것이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사이의 연대 역시 고하가 생존했을 때만큼 공고하지 못했다. 고하

의 죽음 이후 마포장으로 쫓겨나게 된 이승만은 한국민주당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한국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진 이승만은 초대 내각에서 한국민주당 당원들을 외면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하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그룹들이 정치세력으로는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취약했고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고하는 뚜렷한 공통점과 접점이 없었던 한국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었다. 그의 사후 비주류의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한국민주당에 대해 ‘친일파’ 정당이라는 여론이 가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장덕수 마저 사망한 후 김성수 홀로 치르게 된 5.10 총선거에서의 하락과 초대 내각에서의 배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저자는 농지개혁에 대한 고하의 기여와 체제 선택에 관한 고하의 식견과 고하의 선견지명을 지적하며 고하를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하나로 충분히 평가할만 하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끝맺었다.

II. 고하와 민족주의

한편, 고하를 상징하는 사상적 조류 중 하나는 단연 민족주의일 것이다. 『삼천리』 1936년 4월호에 게재된 “동아일보의 금후의 코스”에 따르면 당대 3대 일간지의 사상적 계열을 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송진우의 동아일보는 민족주의, 방응모의 조선일보는 자유주의,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는 사회주의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창간 초의 사시에서도 ‘이천만 민중의 표현기관’이라고 공언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농후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 신문사를 움직이고 있어 사장인 고하 송진우가 신망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병철이 『신천지』 1946년 1월 창간호에 쓴 “인물 소묘-송진우”에서도 동아일보가 당시 의존할 곳이 없었던 우리 민족이 울며 달려오는 곳이 동아일보였으며 민족의 눈물을 씻어주는 어머니이자 참모가 고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도 민족주의에 관한 고하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4천 년간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흥망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져 본 일이 없었으며, 실제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닌 고정된 것으로 설파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조선에는 표면적으로 관찰하면 단군 대항조가 등극조판하신 이

후로 기자, 기준의 조선도 있었고 위만의 조선도 있었고 또한 진한, 변한, 마한과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분열된 조선도 있었다.(중략) 그래서 4천 년을 통하여 역사적 변천과 정치적 흥체가 반복무상하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선인의 조선이라는 관념은 없어서 본 일이 없었으며, 또한 실체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은 엄숙한 사실이다.(중략) 어찌 그러냐 하면, 역대 왕조의 변천 흥체에 따라서 만일 조선이 멸망하였다 하면, 어찌하여 4천년 이래로 조선민족의 문화가 의연히 보전될 수 있었으며, 또한 조선민족의 혈통이 의연히 존재할 수 있는가.(중략) 이러한 의미에서 역대 왕조 자체의 정치적 흥망에 불과한 것이고 결코 조선민족 자체의 전체적 멸망, 근본적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에서 굳게 단언하는 바이다.”

나아가 그는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고 기술하였다. 사실 고하는 이미 단군, 세종대왕, 이충무공 세 분을 함께 받드는 삼성사(三聖祠)건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남산에 이를 건립할 것을 추진하자 이를 간파한 총독부의 조선신궁(朝鮮神宮) 건립으로 좌절된 바 있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자 고하는 1919년 3.1운동 직후 피검 되었을 때에도 검사 앞에서 “독립운동은 조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단결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선지광 1928년 1월호에 게재한 “3개의 당면한 급무”에서는 조선이 당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로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간회가 탄생하였으며 어떻게 하여야 전민족 결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충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지향 하에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의 사설과 논설을 주로 집필한 논설반을 주도한 것은 국내 상해파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는 이상협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부’가 공존하고 있었고 중간에서 고하가 사장으로서 이들을 아 울렸다.¹⁰⁾

그리고, 『비판』 1931년 5월호에 게재한 “조선의 세계적 지위”에서는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식민지요 경제적으로는 약소민족의 지위에 있으며 문화와 민족으로는 아일랜드와 경제적으로는 인도와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

10)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37쪽.

도 불구하고, 지리상으로 조선이 세계 교통의 중심로가 되어 있으므로 조선민족은 정치적,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으며 조선문제는 동양에 있어서나 세계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조선민족의 세계적 지위 역시 그 어떤 약소민족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조병옥은 1959년 8월25일 발간한 『나의 회고록』에서 고하 송진우와 인촌 김성수 두 인물이 민족주의자들로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의 장래를 위하여 실력양성에 힘썼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에 공헌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1969년 발간된 『추정 임봉순 선생 소전』에서는 두 사람이 이끌었던 동아일보가 일제 치하에서 정부 아닌 민중의 정부로 일하였다고 까지 평가한다. 그만큼 민족을 위해 일했고 민중에 미치는 영향에 공신력과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실례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신간회에서 가인 김병로, 허헌 등과 함께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고하의 활동과 1929년 1월14일 벌어진 원산 부두 노조의 총파업 당시 동아일보와 고하가 보여준 태도였다.

실제로 고하는 신간회 창립 당시인 1927년 2월 15일에 일제의 재판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었다. 이미 고하는 1926년 3월 6일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국제 농민조합 본부가 보낸 3.1운동 7주년 기념 메시지를 게재하였다가 필화사건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바 있었다. 최준이 1960년 3월 25일 발간한 『한국신문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당시 민간 3대지는 제각기 1919년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기념 특집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경우 경무국으로부터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3월 6일 오후 4시40분 제2차 무기간 발행 정지의 행정처분의 통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주필인 송진우는 편집 겸 발행인인 김철중과 함께 기소되어 송진우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김철중은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이중으로 탄압당한 동아일보는 경영상 커다란 타격은 면치 못하였으나 독자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1926년 4월 19일 제2차 발행정지가 해제된 동아일보는 2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광화문 신사옥으로 12월 21일 이전함을 계기로 민족주의 신문으로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고하는 공산주의자와의 합작 불가론을 지니게 되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은 신동아 1987년 8월호 “해방전후 종횡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유석 조병옥

으로부터 고하가 신간회는 민족운동 단일체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와의 일시 연합 전선이나 머지않아 공산주의자의 생리와 그 이질적 성분 때문에 내부 분열을 일으켜 내부 분열을 일으켜 조직이 와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고하는 신간회의 지도자로 함께 활동하였으며 동아일보 감사역과 사장서리까지 역임하였던 허헌과 해방 정국에서 불화하였다.

실제로 고하가 1927년 신간회 경성지회에 가입할 당시 조직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일부가 쥐고 있었는데 이들은 송진우와 동아일보 계열 인사를 타협적 민족주의자, 대자본가로 인식하고 비난했다. 몇몇 신간회 간부는 송진우를 가입 즉시 제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1929년 광주 학생항일운동 이후 기존 신간회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송진우와 동아일보 계열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중앙 지도부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자, 임화를 중심으로 한 신간회의 지회들이 새 지도부의 노선에 반발하면서 신간회는 1931년 해소된 것이다.

1930년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호에 미국 네이션 지 주필의 축사를 게재하여 제3차 무기 정간을 당했던 동아일보는 1936년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장기간 무기 정간에 처해졌다. 이후 동아일보는 일제의 압박에 의해 경영진과 편집진을 대거 교체하고 일제의 언론통제 정책에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송진우는 이런 동아일보의 행보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는 일체의 정치 사회 활동을 중지하고, 측근들인 김병로, 정인보, 문일평 등과 함께 은둔하면서 지조를 지키며 변절하지 않았다. 고하의 영향 하에 이들은 1930년대 사상과 문화혁신을 주장한 바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민족주의가 조선 민족의 지도 원리이자 사상혁신의 기준이었으며 민족운동이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통일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상혁신을 위해서는 조선만의 사상을 마련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연구하여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조선학운동은 단순한 학술 운동이 아니었다. 서구 근대사상에 비견하는 새로운 조선의 근대사상을 재발견하고 마련하기 위한 기초운동이자 사상운동이었다. 이는 서구의 근대사상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도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근대적 중국 사상을 정립하려고 했던 20세기 전반의 중국 국학파, 량치차오(梁啓超)와 그의 연구계, 신유가와 1930년대 중국 본위 문화운동 등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비록 중국만큼 폭넓고 깊게 연구되지는 못했

지만,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중국과는 다른 학문적 전통과 역사적 배경 속에도 새로운 근대적 조선사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¹¹⁾

고하 역시 1934년 평양 송실전문학교의 신사 참배 거부를 옹호하기 위해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학문의 세계란 자기의 경험과 착상만으로 무엇이나 해치울 수 있는 것 같은 안락한 세계는 아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여러 가지 다른 수많은 경험과 기교해서 음미 되어야 하고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적 사실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시행도 거듭되어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 폐간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합법적 정치운동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고하는 민족주의 문화운동을 통해 미래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하의 1930년대 행적 중 상당 부분 역시 이러한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1931년 고하는 제2의 애국가로 불렸던 「조선의 노래」를 제정하였다. 이는 나라가 없어 국가를 제정할 길이 없는 민족의 노래로서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음악가 현제명에게 작곡하게 한 것이었다. 1933년에 6년간의 준비 끝에 조선어학회의 새 맞춤법을 채택하고 동아일보에 새 활자를 도입하여 한글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1934년 현진건 기자의 조사를 토대로 평남 강동읍 대박산 아래의 단군릉 수축 기금을 모금하고 모금된 5백 원을 단군릉 수축기성회에 전달하는 한편, 허물어진 담벽 등을 보수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열성을 다한 것 역시 민족주의 문화운동의 일환이었다. 권을 사당을 중수하고 이순신 현충사를 완공하고 영정을 봉안한 것 역시 역사적 위인들에 대한 현양 사업을 펼쳐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한편, 그는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며 주위에 일본이 조선의 자치를 주겠다고 달랠 것이며 더 나아가 독립을 주겠다고 제안할 것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가장 어려울 때가 될 것이므로 정권 인수를 거절해야 할 것을 암시하였다. 1943년 나들이 길에 낭산 김준연을 만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낭산, 일제는 꼭 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궁박하게 되면 자치라는 미끼로

11)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498-500쪽.

우리를 유혹할 거요. 형세가 더 궁하면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움직여서는 안 돼.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 그래서 대책은 무책이오”

고하가 이렇게 확신에 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지식인들로부터 외국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43년에는 서울방 송국의 기사가 단파로 이승만의 활동을 포함한 미국 소식을 듣고 송진우와 허 현 등에게 알렸다가 관련 인물들이 혹독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¹²⁾ 1944년에는 설의식, 장철수 등을 통하여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청취하고, 국제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특히 얄타회담과 포츠담선언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8·15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절대 지지론’을 선도적으로 주장하면서 한국민주당 창당과 활동을 주도한다.

III. 고하와 자유민주주의

해방 직후 고하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이 자유민주주의, 임정 봉대, 미군정 인정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이는 당시 송진우와 한국민주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조선공산당이 이들을 맹비난한 9월 문건에서는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와 결탁해 저 미국식 데모크라시 적 사회제도 건설을 최고 이상으로 삼는 반동적 민족부르주아지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동적 정당”¹³⁾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한국민주당 출범 당시 총무 8인 중 한 명이었던 허정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 한국민주당의 지상과제였다는 회고를 남겼다.¹⁴⁾

그리고, 김영수는 고하가 1인이나 한 계급의 독재가 되면, 국민의 “생명,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반대했다고 지적한다.¹⁵⁾ 실제로 고하는 정치적으로 독재를 배척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했다. 이는 송진우의 연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 1면 기사 “民族(민족)을 永久維持(영구유지) 韓民黨 政見發表 放送(한민당 정견발표 방송)” 중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1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322쪽.

13)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20, 43쪽.

14)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1979, 108-109쪽.

15) 김영수, 「[朝鮮칼럼] 臨政 애국자들과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조선일보』 2024년 9월 11일,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9/11/LFTAJFC5KJGTBJ3URBKJEAAG4/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체를 수립해야 합니다. 독립한 국가가 될지라도 그 권력이 한 사람의 것이 되고 일계급의 독재한 바가 된다면 무엇으로써 우리의 생명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나 사회에는 오직 마찰과 대립이 있을뿐이니 우리는 만인이 기구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지니...(중략)”

최근에 고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한 윤덕영의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에서는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의 사상을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 계열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서 기존 연구의 주된 흐름들은 부르주아 상층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타협적 자치운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1997년에 작성된 심재욱의 석사논문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 연구』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윤덕영에 따르면 이는 고하 사후 한국민주당의 주도권을 장덕수, 조병옥, 김준연, 윤보선 등 보수파가 장악하고 고하 지도 하의 노선에 동조하여 좌우합작과 토지개혁을 지지했던 원세훈, 김병로, 김약수 등 비주류 세력이 한국민주당을 탈당해 김규식 계열로 활동하게 되면서 벌어진 오해이다. 또, 일제강점기 고하는 합법적 민족 정치단체 건설 논의의 주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 타협적 자치를 주장하는 친일 정치세력과는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그는 1924년 동아일보를 통해 친일 정치세력이 결성한 ‘각파유지연맹’을 비판했다가 인촌 선생과 함께 친일파 박춘금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권총으로 위협을 받는, 이른바 ‘식도원 육혈포 협박 사건’을 겪기도 했다.

고하는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일본의 민본주의 등 수정 자본주의 사상과 이념을 지향했다. 윤덕영에 따르면 서구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에 수용되고 있었고 민본주의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사상도 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영향은 동시대에 식민지 조선에 소개·수용되었다.¹⁶⁾ 일제하 조선의 민족운동을 주도하던 민족운동가들과 민족 엘리트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송진우도 그 일원이었다. 이 당시의 일을 송진우는 “동경 유학 시대 나는 여기에서 많은 지기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다.¹⁷⁾ 이를 통해 조만식, 김병로, 장덕수, 정세운, 선우전, 신석우, 한익동, 문일평, 변광호, 안재홍, 박이규, 조소앙 등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 동경 유학생들 간의 교류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실제로 고하는 동경 유

16)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152-153쪽.

17) 송진우, “交友錄,” 『삼천리』 7권6호(1935.6.15.), 51쪽.

학기간 중 유학생 친목회 총무를 지냈으며 1914년에는 장덕수와 함께 발간한 잡지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인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독점 자본의 제한과 민중 생활 보장, 중요산업의 국가적 통제 등 국가의 개입을 긍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창간부터 1920년대 전반 시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인 ‘상해파 고려공산당 국내부’에 기반한 ‘국내상해파’가 동아일보 논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내용상으로도 서구와 일본의 수정 자본주의 사상은 물론,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상당히 진보적인 주장을 전개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덕영은 당시 동아일보를 부르주아 상층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25년부터 신문사 경영은 물론 신문의 편집과 논설에서 송진우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후 송진우는 ‘신문독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아일보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렇게 송진우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동아일보 논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성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덕영은 동아일보의 전체적 논지 기조는 1920년대 전반과 큰 차별성을 갖지 않고 진보적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고하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이 논문은 고하가 하와이 범태평양 민족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후 20세기가 진전함에 따라 펼쳐질 세계의 대세와 우리나라의 장래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글이다. 다음의 구절에서는 해방된 이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일찍부터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동아의 풍운이 일어나고 이리하여 일, 미의 충돌이 발생할 시에는 미국의 세력 하에서 조선의 해방을 희망하며...”

이에 반해 고하가 주도하던 동아일보 그룹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서 ‘좌익 전체주의 그룹’으로 평가했다.¹⁹⁾ 또한, 신자유주의와 의회주의의 진보성을 인정하던 이들은 파시즘을 ‘반동사상’으로 여겨²⁰⁾ 파시즘의 전제성과 역행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지향은 1945년 12월 1일

18) 윤대식, 『건국을 위한 변명』, 신서원, 2018, 113쪽.

19)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453쪽.

20)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455쪽

동아일보 중간사 “주지를 선명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아일보의 3대 창간 주지로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의 자임, 민주주의의 지지, 문화주의의 제창을 꼽아 민주주의를 지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병철이 『신천지』 1946년 1월 창간호에 쓴 “인물 소묘-송진우”에서도 고하 선생의 뜻으로 ‘국민대회, 임시정부 지지, 강력한 민주주의’를 꼽아 민주주의자 고하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하의 자유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한국인은 없을까? 김명구와 박찬욱은 월남 이상재와 우남 이승만을 그 예로 제시한다. 월남 선생을 향한 고하의 숭모는 “월남 선생을 위한 만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고하의 손자 송상현은 고하가 월남 이상재를 평소에 굉장히 사숙하고 존경하여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고하와 월남의 직접적인 인연은 민립대학 설립 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고하는 월남 선생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숙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면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의 직접적인 증거로 월남 이상재가 1927년에 돌아가시고 고하가 1932년 『삼천리』에 쓴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글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가 1930년대에 YMCA에서 나왔고 고하가 한국민주당 초대 수석 총무를 할 때 한국민주당이 세 번째 정강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연관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하와 YMCA 간의 인연은 이상재를 제외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1908년 벽초 홍명희의 권유로 떠난 일본 유학 전에 잠깐 YMCA 회관에서 영어를 배운 바 있었다.

다음으로 우남 이승만을 들 수 있다. 이승만과 송진우의 인연은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2년 3월 26일 잠시 귀국했었던 서울을 떠난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5월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국제 감리교 회의 참가를 결정하였고 그 중간에 잠시 일본에 들렀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은 가마쿠라에서 조소앙 등의 한인 유학생들을 만난 후, 도쿄 YMCA에서도 한인 유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²¹⁾ 강연을 들은 청년들 가운데는 나중에 한국의 지도자로 활약할 송진우, 이인, 안재홍, 김병로, 최두선, 현상윤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1919년 이른바 ‘문화정치’가 실시된 이후에 『개벽』, 『삼천리』, 『혜성』 등 당시 지식인들이 애독하던 잡지에는 이승만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²²⁾

그리고, 1925년 고하는 하와이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 민족 회의에 신흥

21) 이택선, 『우남 이승만 평전: 카리스마의 탄생』, 이조, 2021, 48쪽.

2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322쪽.

우, 유억겸, 서재필, 김활란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이승만을 만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고하는 이승만 망명 제의를 거절하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IV. 고하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한편, 송진우는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로 경제민주화의 원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정치에서 독재가 문제가 있듯이 경제에서 독점 자본이 문제 있다는 인식을 보였던 그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인사들을 포용하는 성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송진우의 연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 1면 기사 “民族(민족)을 永久維持(영구유지) 韓民黨 政見發表 放送(한민당 정견발표 방송)” 중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 있어서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 추구에 방만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 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 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재하는 데 있는 것이니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자본을 요하고 독점성을 띤 중요 산업은 국영화 혹은 공영으로 해야만 할 것이요. 또한 토지 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 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부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 겸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도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고하의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흥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의 수입이 가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것도 사실이다.(중략) 또한 보선의 실시 후 일본의 정계에 붉은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여질 것인가, 혹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이 곧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중략)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적로(공산주의 러시아)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자가 상대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중략) 미국의 자본적 제국주의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혹은 이민 문제로 혹은 중국 문제로 반목 의도가 증가하며 충돌의 계기가 촉진된 것이 사실이며...”

북유럽의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복지 사회주의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²³⁾ 여기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들을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혁명과 같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변화의 추구 여부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 제도가 공산당의 권력을 재승인하는 데 그치는 공산주의 체제보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상호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철학을 추구한다. 그리고 고하 송진우의 정치 이념도 이러한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긍정하면서 경제적으로 복지 사회주의를 추구하였고, 운영 원리에 있어서는 상호 이해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철학을 소유하고 있었다.

윤덕영은 송진우의 ‘자유권과 생존권’ 주장을 ‘자유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의 통합을 구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결국 자유주의의 수정이자 자본주의의 체제 내적 사상인 것처럼, 고하의 자유권과 생존권 주장도 병립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민중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민족주의운동의 일정한 수정을 통해서,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일부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운동을 민족(주의)운동 내부로 포괄하겠다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²⁴⁾

23) 강원택 역시 북유럽 등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남침으로 6·25 시작’ 삭제… 전쟁·분단의 北책임 명확히 안 밝혀”, 2022년 8월 31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ion-academia/2022/08/31/PBS7C570QBDIDM6G630MADBBCI/>

24)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190쪽.

한편, 『조선지광』 1929년 1월호에 기고한 “소작 입법의 필요”에서는 조선의 소작문제 해결에 있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주의 가성이 필요하며 소작인에 대해 그 지위를 법률 혹은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예컨대 토지의 수용령이란 결국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소작법 그 자체는 소작인이라는 사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결코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소작문제가 심화되면 국가적 견지로 보아 그대로 방임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주의 각성이 필요하며 지주는 무엇보다도 공존공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작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작인을 지도하여서 농업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미 그는 미국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에 게재된 “노력정진 갱일보”에서는 황금국 아메리카에도 실직자가 거리를 메우며 빈곤의 인도가 순교적 수난에 혈떡거린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문제를 자본가의 선의로 해결할 수 없음 역시 분명히 하고 있었다. 『삼천리』 제4권 4호(총 25호), 1932년 4월호에 게재한 “무풍적인 현하 국면 타개책-문화운동과 소비운동에 주력-”에서 고하는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김성수, 최창학, 박철영 등 당대의 부호들이 수백만원의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조선 농민의 경제적 파멸을 막아주면 어떻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자본가의 이해와 불일치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1945년 9월 16일 한국민주당 창당대회의 강령과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강령 3. 근로 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과 정책 1.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와 4.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5. 중공업주의의 경제정책 수립, 6. 중요산업의 국영 또는 관제 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편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1945년 12월 1일 동아일보 중간사 “주지를 선명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아일보의 3대 창간 주지로 민족의 표현기관으로의 자임, 민주주의의 지지, 문화주의의 제창을 꼽는 한편, 이를 좀 더 부연하여 네 가지를 꼽고 있다. 이에 따르면 셋째로 동아일보는 근로 대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기약하며 그리하여 기회균등의 공도에 의한 이상사회의 실현을 추진코자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하와 한국민주당 구성원들의 생각에는 차이가 존재했고 이것이 고하 사후 한국민주당의 성격 변질로 이어졌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유석 조병옥은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기고 있다. 그는 1945년 12월경 모 군사

단체가 친일파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압수하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범죄와 사유 재산을 혼돈해서 몰수하고 강탈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개인의 죄과는 법적조치에 의해 처벌해야 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경제 사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막연한 이유만을 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강탈한다는 것은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그는 역설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조병옥은 연희전문학교 교수 시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주요 논객이었던 이순탁²⁵⁾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었다. 조병옥은 이순탁이 연희전문학교 학과장이었던 시절에 그의 발탁을 받아 그 대학 상과 교수로 일한 적이 있었다.²⁶⁾ 조병옥 자신의 술회에 따르면 그는 자유민주주의 경제학을 강의했고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사회주의 경제학을 강의하는 이순탁과 백남운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한 일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²⁷⁾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하 사후에도 한국민주당에 남아 중심 세력이 된 유석 조병옥과 달리 한국민주당 내에서 김병로계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순탁은 1946년 10월 10일 한국민주당을 탈당하였다. 이미 고하와의 인연으로 한국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원세훈이 1946년 10월 8일 탈당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21일에는 당무 부장 김약수가 탈당하여 고하와 인연이 있던 인사들의 한국민주당 이탈이 본격화 되었다.²⁸⁾ 결국 고하 송진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국민주당이 고하 사후 수석 총무로 취임한 인촌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기호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민주당의 성격과 인적 구성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5) 1920년대 동아일보는 고하 송진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문 사설에 관여했던 김준연, 박찬희, 설의식, 장덕수, 함상훈, 김양수, 최원순 등과 주요 논객이었던 이순탁, 정인보 등이 주도하였다.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93쪽.

26) 『조선일보』,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공황기 세계 격변의 현장 전하다: [인물과 사건으로 본 조선일보 100년] [17] 세계일주기 연재한 이순탁, 홍콩·이집트·佛·獨·英·美… 현장 보고서 電信으로 보내 9개월에 걸친 세계일주기 연재. 유럽서 파시즘·나치즘의 현장, 美의 무기·교통 등 문명 전하며 조선인에게 생존의 길 일깨워”, 2020년 3월 6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0136.html

27)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출판사, 1986, 93-95쪽.

28) 당시 김병로는 김병로 계열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민중동맹’ 결성대회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촌 김성수의 설득으로 김병로와도 절친했었던 라용균과 백관수는 탈당하지 않았다. 이, 삼중의 당적이 허용되던 당시 김병로가 한국민주당을 탈당하였는지는 여러 기록을 통해 엿갈리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상호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V. 해방정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고하의 구상과 행동

한편, 총독부는 고하가 예측한 것처럼 일제의 패망이 다가오게 되자 1945년 8월 10일 그를 호출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측은 그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조선총독부와 고하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졌으나 고하는 계속해서 총독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다급해진 총독부는 8월 15일 아침 여운형에게 정식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측면으로부터의 협력’을 요청했다. 여운형은 이를 즉시 받아들였고 여기에 안재홍이 가담으로써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고하가 총독부의 요청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해방정국에서 고하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의 봉대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하는 자신이 프랑스 비시 정권의 페탱이나 중국의 왕정위, 필리핀의 라우렐과 같은 괴뢰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45년 9월 7일 발표된 “국민대회준비회 취지서”에서도 일본의 정권이 퇴각하는 해방의 이 순간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기미 독립 이해로 해외에 삼천만 민중과 국혼의 표상으로 해외에 엄존하였던 대한 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파당과 색별을 초월하여서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현하의 내외정세에 타당한 대의명분이니 구정의 잔재가 상존한 작금에 있어서 우리 전 국민의 당면한 관심사는 우선 국민의 총의로써 우리 중경에 있는 대한 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서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연합 각국에 사의를 표명할 것. 국민의 총의로써 민정 수습의 방도를 강구할 것 등이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19일 자에 게재된 “임시정부 환영사”에서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919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수립된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이 선포되었고 1932년 김구의 주도하에 결행된 윤봉길 선생의 거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성가에 세계에 과시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1919년 이래로 우리 민족에게 공헌한 이승만, 김구를 위시한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국내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의 능력이 있음을 국외에 보이고 빠른 시일내에 연합국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에 주위에서도 이미 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 임병철이 신천지 1946년 1월 창간호에 쓴 “인물소묘-송진우”에서도 고하 선생의 뜻으로 ‘국민대회, 임시정부지지, 강력한 민주주의’를 꼽아 국민대회를 통한 임시정부 봉대에 관한 고하의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임시정부 환영사”에서 이승만 박사가 강조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인민공화국에서 주석으로 추대한 인물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의 뒤에서 실제로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그리고,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군사부장 김원봉이 임명되었지만, 이를 통해 이승만은 흉악한 공산주의자들마저 국가수반으로 떠받드는 진정한 ‘민족의 영웅’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자산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저명한 공산주의자 김철수는 인민공화국 발족사실을 알려주러 온 공산주의자 하필원에게 분노하며 “송진우, 안재홍, 백남운 등 민족주의자와 상의해서 한 것이냐”고 되묻기까지 하였다.²⁹⁾

무엇보다도 고하는 해방 직후부터 뚜렷한 건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1945년 9월8일 중국 유력지 『대공보지』기자와 가진 회견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그는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의 혁명원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 신생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구상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그 주체로 식민지 교육하에 전문학교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은 수십만의 지식계급과 해외에 나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일 투쟁을 해온 혁명 세력을 꼽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국가건설을 달성할 것이므로 비록 카이로 선언에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미국, 중국, 영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원조만 해주면 국제 연합의 후견 혹은 어느 국가의 신탁 통치를 밟는 과도기적 과정 없이 독립 국가로 훌륭히 자존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한편, 이 구상에는 철모르고 보잘것없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과 박헌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9일 자에 게재한 “최후까지 투쟁하자”에서도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 민족의 완전 해방과 자주독립 없이는 동양의 진정한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다. 또한, 조선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나 탁치 혹은 국제적인 신탁 통치를 받을 민족이 아님이 조선 독립이 선언된 카이로, 포츠담 회의를 통해서도 입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탁치 운운은 국제 신의를 무시하고 세계사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은 이를 반대하는 일대 국민 운동

29)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서해문집, 342-343쪽.

을 전개하여 민족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하에 일찍이 그는 조선총독부가 제안한 정권 인수안을 거부한 자신을 대신하여 나선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의 후신인 인민공화국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타도하기 위해 나섰다. 사실 조선총독부는 끝까지 고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8월 15일까지도 그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8월 17일에는 조선인 도지사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김대우를 통해 여운형과 송진우의 합작을 요청했다. 일제 통치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밀접했으며 고하를 비롯한 동아일보 그룹도 몽양 개인에 대해서는 혐오감보다 강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여운형 역시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가까운 해외 세력 보다는 고하와의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고하는 이를 거절하였다. 30)

이렇게 고하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동안 몽양 여운형과 민세 안재홍이 중심이 된 건국 준비위원회는 8월 17일에 방송과 신문을 손에 넣었고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태도를 돌변하여 해산을 명령하자 이들은 미국 극동군사령부의 제8군이 서울로 진주한 9월 5일 다음날인 9월 6일 민세 안재홍이 불참한 가운데 여운형과 조선 공산당의 박헌영이 합작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5년 9월 7일 한국에 미군정이 선포되자, 고하는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조직에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결별한 안재홍과 장안파 공산당도 참가하여 형식상으로 전국민적 조직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9월 8일 미8군 24군단이 서울에 진주하고 9월 11일 미군정 시정 방침이 발표되었다. 미군정이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예측한 고하는 미군정 고문으로 취임하는 한편, 미군정 인선 작업에 깊이 관여하여 자신과 막역한 김용무와 조병옥을 사법부장과 경무부장으로 추천 발령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고하가 미군정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김학준은 『고하 송진우 선생전』을 인용하여 고하와 한국민주당 인사들이 한국에 잠정적인 훈정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군정을 도와서 장차의 정부 수립에 필요한 행정, 사법, 입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조병옥 역시 고하가 지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당시 한국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군정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30)기무라 간 저, 김세덕 역,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성립: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제이앤씨, 2013, 114-119쪽.

인 훈련 기간 없이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들며, 또한 그 없이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민주당의 수뇌부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와신상담 끝에 군정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³¹⁾

이어,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지방조직을 결성하고 있던 그는 정치조직체 결성을 권유하던 설산 장덕수 등의 설득을 받아들여 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 한국민주당을 9월 16일에 결성하고 당수에 해당하는 수석 총무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그룹의 백관수와 서상일 총무를 맡고 라용균이 사무국장, 장덕수가 외무부장을 맡게 되었다.³²⁾ 이렇게 출범한 초기 한국민주당은 보수적 지향에서 우파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합 정당이었으며, 결성 당시 한국민주당과 자매단체인 국민대회준비회의 부장급 이상 간부 36명 중 90% 이상이 민족운동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족주의 정당이였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낙후한 사회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족자본가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초에 시작된 물산장려운동 역시 민족주의운동이었으나 운동 초기에는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장덕수와 나경석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경제적 제반 권리를 위한 투쟁, 민족 차별 철폐 등 민주주의 민족운동을 중시했고 민족 혁명이 이런 민주주의적 과제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해방 이후로 이어져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에 앞장섰던 원세훈, 북풍파 사회주의그룹의 지도자인 김약수, 사회주의 이론가로 유명했던 유진희 등이 사회민주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민주당에 참여해 한민당이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을 천명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³³⁾

이와 함께, 한국민주당 인사들은 미군정청의 주요 부서들을 장악해 나갔고 미군정과의 협력이 굳건해졌다. 10월 5일 미군정은 11명의 고문을 임명했는데 송진우와 김성수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한국민주당 계열의 인물들이었다. 이 사이에 10월 5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민주당과 인민공화국 사이에 협력 모색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미 갈등과 반목이 깊어진 후였다. 그리고, 10월 16일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귀국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31)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출판사, 1986, 190쪽.

32) 기무라 간 저, 김세덕 역,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성립: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제이앤씨, 2013, 124쪽.

33) 『동아일보』2025년 2월3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 상당수, 민주주의 자체를 목표 삼았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203/130954059/2>

이승만과 소통하며 신임이 두터웠던 고하는 반공정신이 투철한 항일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혼란한 해방정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다.

고하는 민세 안재홍 등과 함께 10월 25일 이승만과 회동하여 “북위 38도 문제, 신탁 통치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숙의한 결과 자주독립을 위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이승만의 언명을 믿고 당파를 초월하여 이승만을 중심으로 전선을 통일할 것을 협의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6일에는 자유신문이 여운형과 안재홍, 이승만이 모두 “국내 전선 통일은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최고조인 이 기회를 놓치면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여운형도 동일 밤 이 박사와 회견하여 통일전선 결성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고하 역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장덕수를 통해 한국민주당 당원 장진영 소유의 돈암장을 이승만에게 제공하여 생활과 정치활동의 거점으로 삼게 했다.

한편, 그는 방송과 신문을 접수한 인민공화국에도 맞설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이미 매일신보에서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꿔 속간된 신문사의 사설과 논조가 좌경화되고 인민일보와 해방일보 등의 공산당 기관지가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은 한국민주당계가 중심이 된 미군정 고문단이 임명된 지 닷새 만인 10월 10일에 아놀드 군정장관이 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낸 것에 크게 분노했다. 인민공화국은 다음날인 10월 11일에 성명을 내어 “미군정의 인공 부인이 조선 사람 자신의 비열한 자기 모독과 왜곡된 보고에 기인한 것임을 생각할 때 민족적 치욕을 느끼며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민주당계 고문들을 비난했다. 이어 13일에는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19페이지짜리 영문 팸플릿을 만들어 미군정에 제출했는데 그 속에는 김성수, 이용설, 양주삼, 백낙준, 구자옥, 장덕수 등이 『매일신보』 등에 게재한 학병 권유의 글 등이 들어 있었다. 특히, 김성수는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고 김성수 명의로 되어 있는 글은 『매일신보』 기자 김병달이 유진오와 상의하여 대필한 것이었다. 친일적인 글 임에는 분명했으나 당시에는 크게 주목도 받지 않았던 글을 이제 와서 문제 삼은 것이었다.³⁴⁾

이에 고하는 동아일보의 복간을 서둘러 12월 1일 동아일보사 간판을 서울 공인사에 내걸고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렇게 공산당의 최대의 적인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인 고하가 사장인 동아일보는 반공 신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공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고하의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주당의 편에서 몽양의 저격수로 김준연, 이인, 조병옥 등이 나서게 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민주당을 친일적 집단으로 비판한

34)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132, 137쪽.

길윤형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친일파 논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집요하고 잔혹하게 몽양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³⁵⁾

물론 이후에도 몽양의 추종자들이 고하에게 몽양과 합작할 것을 서면과 면담을 통해 권유해왔다. 그럴 때마다 고하는 몽양이 공산당과 절연할 것은 물론 이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 날인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응수하였다. 이렇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민공화국 타도에 서게 된 고하는 여전히 민족 분열을 우려하여 국민당의 안재홍, 공산당 온건파인 김철수, 이영, 최익한 등과 함께 계속 정책의 통합을 모색하며 임시정부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인민공화국을 선택하지 않은 고하가 기다리고 있었던 임시정부 역시 김원봉 등 좌익계를 포함한 좌우 연립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히 분열되어 있었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와 부주석 김규식이 귀국하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좌우 통합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났다. 고하 역시 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 24일 안재홍과 함께 김구를 방문한 고하는 임시정부 측에 조완구를 통해 9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주석 김구에게는 서대문 경교장을 마련해주었다. 당시 송진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일 진정한 정부로 신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임시정부 절대 지지를 표시하고 “개인 자격이니 비공식이니 하는 것은 대외적인 법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일 것으로 대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무엇보다도 임시정부의 핵심인 정치세력을 토대로 하여 각파와 합류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임시정부를 전민족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로 상정하고 건국 정부의 성립 선행조건으로 제시하였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지지하고 이승만과 국민총동원 방법을 논의하고 있던 고하에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12월 중순 송진우, 장덕수 등 한국민주당 인사와 조소앙, 신익희, 엄항섭 등 임시정부 인사가 식사를 하다가 친일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싸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이미 임시정부 측은 자신들이 귀국한 직수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백관수, 김준연, 허정, 장택상 등의 한국민주당 지도부가 경교장으로 찾아갔을 때 영하 15-16도의 추운 날 대문 밖에서 네 시간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노골적인 반목의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³⁷⁾

1945년 12월 2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3상 회의를 통해 한반도 신탁통치안

35)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지은 시간들』, 2020, 서해문집, 346쪽.

36) 윤대식, 『건국을 위한 변명』, 신서원, 2018, 341쪽.

37)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137쪽.

이 전해졌다. 고하는 하지 미군정사령관과 아놀드 군정 장관에게 반탁 시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12월 28일, 29일에 임정 요원들과 가진 회의에서는 미군정청과는 충돌을 피하고 국민 운동으로 반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하였다. 강원용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경교장에 신탁 통치안에 대해 논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격해있었다. 이때 김구는 “우리 민족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탁 통치만은 받을 수 없다”면서 흥분했으며 당시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송진우는 원칙적으로 반탁 입장임을 명시하면서도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자.”,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얻는다.”, “무력으로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려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당시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당장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며칠 후 임시정부는 신익희 등이 주동이 되어 이를 실행에 옮기다가 무산이 되고 하지와 김구가 극단의 대립을 보이게 된다. 임시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송진우는 미군정으로부터의 정권 인수는 일종의 쿠데타라며 온건론을 주장했다. 이에 12월 29일 저녁 8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 고하는 그를 찬탁론자로 모는 임시정부 강경파들과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 서울 종로구 원서동 74 자택에서 한현우, 유근배 등 자객 6명의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다. 고하의 암살범에 대해서는 추측이 분분하다. 조병옥은 “고하 송진우 선생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격한 신탁 통치 운동에 반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군정으로부터의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신탁 통치 반대운동이란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제한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주장했다. 송진우는 이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회고하고 있다.³⁸⁾ 이정식은 당시 흥분되고 신경질적이었던 민족의 감정 속에서 송진우를 반역자로 규정한 우익진영에서 그를 암살해 버렸다고 추측한다. 예컨대 송진우도 원래 신탁을 반대했었지만 하지 사령관의 끈질긴 설명과 설득으로 제한된 기간 내의 신탁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울었다가 비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³⁹⁾

실제로 고하를 암살한 한현우는 1993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은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라고 생각하여 임시정부를 지지했었지만, 한국독립당은 순수한 민족주의자였지 정치지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1993년 2월 21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하가 신탁 통치에 찬성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고하를 살

38)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출판사, 1986, 190쪽.

39)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134쪽.

해했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경우 여운형이 주석이 되어 한국은 공산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여운형 암살 역시 자신이 감옥에서 지시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하 주도 하의 한국민주당은 해방 정국 하에서 좌, 우가 함께 하는 중용적인 정당 정치 속에서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꿈꾸었다. 예컨대 고하가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출범한 국민대화 준비위원회 강령 제4항을 보면 “보수, 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정당 정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⁴⁰⁾ 또한 전술한 것처럼 당시 송진우와 한국민주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조선공산당이 이들을 맹비난한 9월 문건에서는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와 결탁해 저 미국식 데모크라시적 사회제도 건설을 최고 이상으로 삼는 반동적 민족부르주아지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동적 정당”⁴¹⁾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외부의 객관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고하 사후 그런대로 유지되던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주당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는 민족진영의 분열로도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고하 사후 1946년 좌우합작운동을 계기로 한국민주당에서 탈당한 일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중동맹’ 등 해방 정국의 중간파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좌우합작 7월칙이 발표되면서 한국민주당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입장 대립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민주당 주류 세력은 7월칙 중 토지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을 주장한 한국민주당 주류세력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한국민주당 내부에서 비주류 계열, 특히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었던 세력들의 대거 탈당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⁴²⁾

고하의 죽음 앞에서 어린애처럼 평평 울었던 이승만의 모습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한다. 귀국 직후 좌, 우익이 총망라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했던 우남이었으나 고하가 서거할 즈음에는 박헌영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이 이탈하여 점차 민족 전체가 아닌 우파 중심의

40)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20, 151쪽.

41)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20, 43쪽.

42) 국사관 논총 제58집, 1. 한국민주당의 탈당사태,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kn_058_0040_0050_0010

지도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고하의 손자 송상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기 천하의 이승만도 1945년 11월 하순경 고하에게 자신의 역부족을 호소한 바 있었고 이러한 그를 격려와 위로로 일으켜 세운 것이 고하였다.⁴³⁾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승만의 눈물은 이제 고하가 없으니 더 이상 중간파나 좌파를 통합시킬 구심점이 없다는 절실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한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고하를 추모하며 다음과 같은 만장을 남겼다.

“의인은 예부터 자기 명에 죽는 경우가 드물고(義人自古席終稀) 한번 죽는 것을 심상히 여겨 마치 제집으로 돌아가듯 한다.(一死尋常視若歸) 나라 안이 모두 슬퍼하고 처자들도 우는데(舉國悲傷妻子哭) 선달 그믐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가.(臘天憂里雪罪罪)”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사이의 연대 역시 고하가 생존했을 때 만큼 공고하지 못했다. 전술한 것처럼 고하는 설산 장덕수를 통해 설산의 고향 사람이자 한국민주당 당원인 장진영이 소유한 돈암장을 이승만에게 제공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고하의 죽음 이후 이승만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자 미군정과 의 충돌이 잦아졌다. 이에 돈암장의 주인 장진영은 이승만의 퇴거를 종용하였다. 1947년 8월 25일에 이승만은 돈암장 생활을 정리하고 마포장으로 이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보일러도 구비되어 있었던 마포장 생활을 햇빛도 잘 들지 않아 감기에 잘 걸려 우울했던 나날들로 회고했다. 아마 한때나마 찬탁 운동에 동참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던 한국민주당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우남의 심경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마포장에서 이승만은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들로부터 암살 위협까지 당했다. 만일 고하가 생존해 있었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한국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진 이승만은 다시 한번 이화장으로 이사한 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초대 내각에서 한국민주당 당원들은 외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고하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그룹들이 정치세력으로는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⁴⁴⁾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세력은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⁴⁵⁾ 이

43) 『월간조선』2023년 12월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조부 송진우의 一生: “古下는 해방 후 혼란 속에 자유민주주의 기초 닦은 巨人”」,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312100048>

44)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369쪽.

45)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에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기호파 세력과 명확히 구분되는 세력으로 동아일보의 주도적 입장을 강조하는⁴⁶⁾ 독자적 세력이었음에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연히 인촌 김성수와 함께 동아일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동아일보 계열의 핵심 지도자⁴⁷⁾였던 고하 송진우의 위상 역시 잊히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민주당은 고하와 인연이 있었던 원세훈 계열과 김약수 계열, 김병로 계열이 탈당한 후 김성수와 백남훈, 장덕수가 중심이 된 주류 세력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제시대 기독교 계열의 조직에 참여했다는 점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김성수가 장악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194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탈당한 비주류 계열의 인사들에 비해 보다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초창기의 한국민주당은 인촌 김성수의 ‘동아일보’ 그룹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들 이외의 많은 세력들도 참가하여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또, 최초의 한국민주당 총무 8인 중 동아일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들도 송진우, 백관수, 서상일 3명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5인인 원세훈, 김도연, 허정, 조병옥, 백남훈은 큰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주류 세력은 크게 YMCA계의 ‘흥업구락부’와 흥사단 계열의 ‘수양동우회’를 배경으로 한 미국 유학파와 ‘동아일보 그룹’ 계열의 일본 유학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 유학파와 미국 유학파 사이를 연결시켜준 것은 1910년대에 와세다대, 1920년대에 컬럼비아대에서 수학한 장덕수였다. 그는 총무 중 조병옥과는 컬럼비아대 동창이었으며 김도연, 허정 등과는 1926년 ‘삼일신문’ 발행을 위해 협력했던 사이였다.

이에 반해, 원세훈, 김병로, 이인, 김약수, 이극로 등이 중심이 되었던 비주류 세력은 주류파와 달리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대부분 고하처럼 사회주의 세력과 협력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제 말기에 조선 총독부에 대해 일정한 타협을 하는 대신 활동 자체를 단념하고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들이 한국민주당에 참여한 계기는 주류파가 중시했던 반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교유관계와 민족주의 이념 때문이었다.⁴⁸⁾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고하 사후 한국민주당을

2024, 466쪽.

46)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237쪽.

47)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375쪽.

48) 기무라 간 저, 김세덕 역,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성립: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제이앤씨, 2013,

탈당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고하와 장덕수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비주류의 민족 주의자들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한국민주당에 대해 ‘친일파’ 정당이라는 여론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민주당은 이제 거대한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김성수와 장덕수를 축으로 하는 정당으로 개편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장덕수마저 사망한 후 치르게 된 5.10 총선거에서의 하락과 초대 내각에서의 배제로 이어지게 되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한국민주당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과 후속 역사의 이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고하의 영향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저자는 농지개혁에 대한 고하의 기여와 체제 선택에 관한 고하의 식견과 고하의 선견지명을 지적하며 고하에게 건국의 아버지들 중 일인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먼저, 농지개혁에 대한 고하의 기여이다. 보통 경제학적으로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평등,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는 뜻인데, 1960년 한국의 토지 분배 지니계수는 0.3 수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토지 분배가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였다.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발전 보고서』(2006)는 세계적으로 토지 분배가 상당히 평등했던 한국, 대만, 일본이 높은 장기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한국은 대만, 일본보다도 토지의 지니계수가 낮은 것은 물론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낮았다. 이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증명한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세계은행만의 것은 아니다. 오데드 갤로어(Oded Galor)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그의 저서 『인류의 여정(The Journey of Humanity)』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산시킨 광범위한 농지개혁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했지만, 경쟁자였던 북한은 사유재산과 토지의 대대적 국유화 그리고 집중된 의사 결정 체제를 채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차이 때문에 한국은 문명정부로 바뀌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북한을 앞설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농지개혁의 성공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⁵⁰⁾

따라서, 한국민주당의 후신인 민주국민당과 지주 세력을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담론의 주장처럼 단순히 악의 축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한국과 대

124-128쪽.

49) 국사관논총제58집 2. 한국민주당의 성격변화,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kn_058_0040_0050_0020

50)오데드 갤로어(Oded Galor), 장경덕 역, 『인류의 여정 부와 불평등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시공사, 2023, 175-176쪽.

만, 필리핀의 농지개혁 사례를 비교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의 관점으로 살펴본 유종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농지 이익 집단(지주 세력)이 국회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인 농지개혁 입법이 이루어진 사례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농지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그러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산정된 보상 지가는 중국 대륙에서 대거 지배 세력이 이주해 온 까닭에 토착 지주들이 힘쓸 수 없었던 타이완의 250%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⁵¹⁾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송진우 사후 한국민주당을 맡은 김성수를 비롯한 인사들이 비록 지주 출신이지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촌 김성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한국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기꺼이 개인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익균점권법을 받아들일 정도로 전향적인 사람이었다. 유진오가 헌법 초안을 제출하자 김성수는 처음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농지개혁에 관한 구절을 읽고 이를 승인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유진오는 농지개혁이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끝까지 그를 설득하였고 결국 그는 태도를 바꾸어 농지개혁에 동의하게 되었다.⁵²⁾ 물론 유진오의 설득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1946년 11월 서정주 등과 함께 우파 문학계를 대표하는 김동리마저 다음과 같이 농지개혁을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농지개혁과 주요 기업의 국유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좌익이요. 민족 해방과 완전 독립을 갈망하는 것이 우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가 우익일 것이다. 조선의 소연방화 거부를 우익이라면 우리는 모두 우익이어야 할 것이고 조선의 미국 식민지의 배격을 좌익이라면, 우리는 모두 좌익일 것이다. ⁵³⁾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지개혁의 이면에는 한국민주당 세력의 협조가 있었다. 이는 한국민주당 세력의 이념 지향도가 상당히 진보적 자유

51) 유종성,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김재중 옮김, 동아아시아, 2016, 151쪽.

52) 정진아, 『한국 경제의 설계자들: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 개발 계획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2, 153쪽.

53) 김동리, “좌우간의 좌우”, 『백민』, 1946. 11, 전성원, “대한민국 변영의 토대를 닦은 “조봉암과 농지개혁””, 32쪽,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주최, “강화소년 조봉암 대한민국을 세우다” 강연회 및 사진전 자료집, 2022년 9월 15일~29일.

민주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이끌어 낸 장본인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이끌었던 최초의 지도자 고하 송진우의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고하 주도 하의 한국민주당은 토지국유화를 주장한 바도 있었다. 이는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하의 냉철한 인식 때문이었다. 고하는 일찍이 한국에 대지주가 적음을 간파하고 대지주들의 양보만 있다면 해방 직후 한국이 처한 취약국가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토지국유화론을 주장하였고 끝내 관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 하에 고하 사후에도 한국민주당은 농지에 대해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역 그 어떤 곳의 지주보다도 개혁적인 농지개혁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커밍스(Bruce Cumings)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혼자 경영할 수 있는 토지 규모보다 많은 5정보를 가진 사람을 지주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대략 1년에 5백 석 이상을 추수할 수 있는 50정보가 대지주의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승만을 보좌한 올리버(Robert Oliver)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걱정 없이 자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을 3정보로 생각했는데 이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5천5백 명 남짓에 불과하였다.⁵⁴⁾ 실제로 민세 안재홍은 해방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서 물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부르주아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당시 사정을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해방 직후 대지주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한국인 대지주는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조선에는 지주 농민 총수 53만 호(戶) 중 2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2,200호(戶)밖에 안 되고 그중에도 조선인 대지주는 극히 소수임에 따라 그 세력도 선진 외국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치 약하다. 또 민족자본의 세력도 역시 약하다.⁵⁵⁾

다음으로 체제 선택에 관한 것이다. 오데드 갈로어(Oded Galor)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의 영향권으로 분할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이것이 지금의 남과 북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과 한국의 지금의 격차는 지리와 문화 차이가 아니다. 지난 1,000여년 간 한반도는 거의 모든 시기에 대체로 하나의 사회를 이루었고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결국 체제 선택의 차이가 현재의 차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즉, 현재 북한의 빈곤과 후진적 기술은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

54)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236~237쪽.

55) 『서울신문』, “안재홍, 민족통일전선 동태에 관한 문답”, 1945년 12월 10일.

독처럼 개인과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와 경제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더해 중앙의 계획은 처음부터 비효율적이었고 이러한 요소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저해하고 부패를 부추기면서 북한을 정체와 빈곤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18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24배나 높고 2020년 기대 수명 역시 11년이나 긴 삶을 누리고 있다.⁵⁶⁾

결국 체제 선택이 현재의 삶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빅터 차(Victor Cha)교수가 최근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교수와 공저한 저서 『한국: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에서 지적한 남과 북의 체제경쟁에 대한 평가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남과 북의 체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찍이 공산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긴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고하의 식견과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56) 오데드 갈로어(Oded Galor), 장경덕 역, 『인류의 여정 부와 불평등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시공사, 2023, 172-173쪽.

<참고문헌>

- 간, 기무라, 『한국의 권위주의적 체제 성립: 이승만 정권의 붕괴까지』, 김세덕 옮김, 제이앤씨, 2013.
- 강만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의 실증적 연구』, 한길사, 2006.
- 깁로어, 오데드 저, 장경덕 역, 『인류의 여정 부와 불평등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시공사, 2023.
- 곽상훈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희망출판사, 1966.
-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 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 길윤형, 『26일 동안의 광복: 1945년 8월 15일-9월 9일, 한반도의 오늘을 결정 지은 시간들』, 서해문집, 2020.
-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동아일보사, 1990.
- 김형석,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동문선, 2024.
- 남시욱, 『한국 진보세력 연구』, 청미디어, 2020.
- 류시현, ‘진지전의 돌파구 제시: 송진우, 동아일보계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조명 윤덕영(2023)’,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인문논총』81권1호, 2024.
-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 , 『여운형: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미지북스, 2020.
- , 『우남 이승만 평전: 카리스마의 탄생』, 이조, 2021.
- ,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 청사진, 2022.
- 윤대식, 『건국을 위한 변명』, 신서원, 2018.
- 윤덕영,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사학연구』, 제 100집, 2010.
- ,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동문선, 2024.
- , ‘세계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한국 민족주의 사상과 운동 -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86권, 2024.

-----, 『또 다른 사회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 역사비평사, 2025.

전강수, “한국 농지개혁의 재평가”, 오두환·김종현 외, 『공업화의 제유형 2: 한국의 역사적 경험』, 경문사, 1996

-----, “평등지권과 농지개혁 그리고 조봉암”, 『역사비평』 통권 91호, 2010.

-----,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2019.

정진아, 『한국 경제의 설계자들: 국가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 개발 계획의 탄생』, 역사비평사, 2022,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출판사, 1986,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자료집』, 이야기숲, 2023.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허정 회고록』, 샘터, 1979,

신문기사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조선』

『한겨레』

영상

공정과 상식 TV

-박찬욱, “고하 송진우 선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그 현재적 의의”

<https://www.youtube.com/watch?v=QrjmmL8049k>

-강원택, “해방 후 고하 송진우의 정치 구상”

<https://www.youtube.com/watch?v=df1-MF-dOfg>

-박명림, “송진우의 중용적 진보와 근대국민국가 건설”

<https://www.youtube.com/watch?v=NrYEzbAkbuo&t=161s>

웹사이트

고하 송진우 선생 <http://www.goha.or.kr/>

유성운, “세상과 함께 더, 스토리: 진보도 보수도 “이건 잘했다”...입 모아 인정한 이승만 정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794>